

#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도민 뭉쳤다

### 범도민지원위원회 창립, 민간차원 지원 위한 창구 역할 기대

민간차원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범도민 불조성 등을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단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칭)는 7일 전주 오벨리스웨딩홀에서 창립 회의 및 관계자 150여명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조병서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경호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도내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14개 시군 명망있는 인사 등 30여명의 발기인들이 정부, 지자체,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의 잼버리 성공개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총회 및 이사회, 고문단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하는 정관안 심의와 임원 선출 등이 있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기획총괄, 도민참여, 청소년지원, 지역발전 등

총 4개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 사단 법인 출범식 개최 전까지 조직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동수 이사장은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무대로,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범도민지원위원회와 힘을 합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꿈, 전북 도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강원도에서도 민간차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강원도 문화 도민 운동협의회'를 구성해 도민통합과 의식함양 운동 등을 펼친 것처럼 이번 사단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범도민지원 위원회 창립이 전라북도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전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여명 운집

2017년 전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전북도'라는 주제로 7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 및 임직원, 전라북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행사로 특강, 동영상 통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캠페인을 가졌으며, 분행사로 2017년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보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대회사, 축사, 축하공연, 비전실천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대회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전북발전과 국가 브랜드 강화 기회를 마련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 도모,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새마을운동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새마을훈장(김창수 김제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수여됐다.

전북도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새마을운동 정신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 시대정신에 맞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 속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아시아 등 70여 개국에 수출되어 개도국에게 새마을운동은 희망이다"라고 강조하고, "전라북도새마을회도 새마을 기본정신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북도민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2017년 크리스마스 썬 증정 7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이양근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장로부터 크리스마스 썬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하는 2017년 크리스마스 썬 증정식 행사를 가졌다.

###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유의하세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정책이나 공약 개발, 인지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절차와 실시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과 활용방안, 새롭게 도입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0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올해 전북 빛낸 장애인 체육가족 한자리

###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열려 24명·2개단체 유공자 수상

제11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이 7일 오후 5시 전주 오벨리스웨딩홀 5층에서 장애인 체육가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애인 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의원을 비롯한 도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참석하여 상을 받은 장애인 체육 유공자 24명과 2개 우수 산하단체를 격려했다.

올해 '장애인체육 최우수 선수상'에는 '장애인 태권도 최혜성' 선수가

수상했다. 최 선수는 지난 7월 터키 삼순에서 열린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 2, 은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밖에 국내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늘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다.

최우수단체상에는 지속적인 신인선수 발굴 영입과 전국체전에서 지속적인 성적향상을 보이며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보여준 '전라북도장애인역도연맹'이 수상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간판선수인 전민재(육상트랙), 손옥자(배드민턴) 선수가 특별상 장애인선수 부

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민재 선수는 올해 IPC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 중국오픈 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4년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손옥자 선수는 '태국장애인배드민턴국제대회'에서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으며, '2017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하며 전북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밖에 2017 장애인체육상 공로부문에 최현숙(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신재석(전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최기순(순창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기환(전북장애인펜싱협회 이사), 이관석(전북장애인당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수상했고, 감사부문에 이기만(명도실업 대표), 강동오(강동오키 대표)가 상패를 받았다.

이날 도장애인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장애인체육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한 해를 보냈다"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면서 전북도의 위상을 드높이며 발전을 거듭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수단체 감사사를 표했다. /김진성 기자

### '인사부당 개입 의혹' 김 교육감 혐의 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앞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7일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 등 외부 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재판 직후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 정부는 압박수단으로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저를) 교육감직에서 박탈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면서 "검찰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것이 없어 씁쓸하다.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시 명확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